

세쓰분·별 축제

일본의 사원과 신사에서는 음력으로 대략 새해 첫날에 해당하는 2월 3일에 입춘을 축하합니다. 엔교지 절에서는 이 축제를 계절의 분기점을 의미하는 세쓰분(節分)이라고 하며 엄숙한 축하 의식이 열립니다. 오후 1시에 마니텐(摩尼殿)에서 주지가 행하는 신성한 고마다키 의식이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경을 외면서 특별한 나무 부적을 불꽃에 던져넣는 것으로서 그해에 불운하다고 간주되는 별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의 액막이를 합니다. 주지는 동아시아에 널리 전해지는, 나쁜 별을 좋은 별로 바꾸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건강, 장수, 번영을 기원합니다. 별에 대한 관심은 엔교지 절과 하늘에서 세계를 내려다본다고 하는 여의륜관음보살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별 축제’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지혜의 왕인 부동명왕을 칭송하기 위한 밀교 의식이 열립니다. 부동명왕의 무서운 모습은 그 한없는 자비심과는 정반대의 인상을 줍니다. 행사는 그해의 별에 태어난 3~4 명의 남자아이가 사원의 관리자와 많은 승려의 도움을 받으며 쿵이 든 주머니를 나눠주는 마니텐에서의 ‘쿵 뿌리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통은 ‘쿵’(일본어로 ‘마메’)이 사원의 부지에서 ‘마귀를 멸하는(魔滅)’(마메) 데 도움이 된다는 신앙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의식을 준비하면서 마니텐의 주 제단에는 8,000 개의 쿵 주머니가 마련됩니다. 참배자에게 쿵 주머니를 던지는 쿵 뿌리기는 엔교지 절에서 특히 인기가 있어 매우 성황을 이루는 행사입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제비뽑기 교환권, 금은 관음보살상 교환권 등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쿵 뿌리기와 비슷한 풍습으로서 도깨비 모습을 한 남자 가족에게 쿵을 던지는, 엔교지 절과 일본 전국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세쓰분 행사가 있습니다. 이 엔교지 절의 입춘 행사는 매년 1월 18일에 열리는,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슈쇼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행사의 목적은 악령을 추방하고 번성하는 해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